



에듀원 콘텐츠 저작권 안내

(주)에듀원에서 제공하는 보충자료입니다. 아래의 콘텐츠 저작권 고지를 반드시 인지하시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실린 모든 편집 구성 및 형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주)에듀원에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 전송, 배포, 2차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콘텐츠 산업 진행법>,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웹하드, P2P 등 (주)에듀원으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온·오프라인에서의 공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작권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 ‘1:1문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발
100중

- A**
- 01 Don't forget to say, "Thank you."
 - 02 Stop folding dog ears in books.
 - 03 Helping Judy, he gets closer to her.
 - 04 The more you love your books, the happier your books will be.
 - 05 It's not so difficult for you to learn how to read and write your own secret messages.
- B**
- 01 Peace makes everyone smile.
 - 02 Do you know what books hate?
 - 03 The lines around each letter mean the letter inside the lines.
 - 04 Doing something nice for your neighbors can change your town.
 - 05 Big ugly carrots are cut into small pieces that have the shape of a baby carrot.

최종점검 모의고사

Lesson 05

pp.84~87

- 01 ③ 02 after 03 ② 04 ④ 05 ③
- 06 don't, at all, do they 07 ④ 08 ③ 09 ④
- 10 ④, ⑤ 11 ④
- 12 The company whose products are popular has become famous.
- 13 ③ 14 ④ 15 was written, whose husband
- 16 ④
- 17 I had two workers prepare our field and plant seeds
- 18 ② 19 ② 20 will → would

- 01 ③ '두 가지 또는 더 많은 것을 고정시키거나 연결하다'는 join(연결하다)의 영어풀이이다.
- 02 look after ~: ~을 돌보다[보살피다]
- 03 빈칸 앞에서 말한 생각의 이유가 빈칸 뒤에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4 그것들(비밀들)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므로 '나는 그것들에 대해 궁금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I'm curious about ~.(나는 ~에 대해 궁금해.)은 어떤 것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05 ⑥ 알았어. 이 개는 우리에게 여기에 있는 남자가 매우 부유했다는 것을 말해 줘.
- ⑥ 나는 이해가 안 돼.
 - ⑧ 그 당시에는 저런 종류의 개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써야 했어.
 - ⑩ 그렇구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저런 종류의 개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지, 그렇지?
 - ⑪ 맞아. 너도 알다시피 그림은 천 마디 말을 해.
- 06 not ~ at all: 전혀 ~ 아님
- 일반동사가 쓰인 현재시제 부정문의 부가의문문: do[does] + 주어(인칭대명사)?
- 07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형 …」((만약) ~라면 … 할 텐데.) 형태의 가정법 과거가 되도록 could go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만약 Peter가 아프지 않다면 그는 학교에 갈수 있을 텐데.

08 ③의 빈칸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that]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나는 머리가 금발인 저 소년을 안다.
- ② 우리는 잎이 둑근 나무를 심었다.
- ③ 그는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내게 줬다.
- ④ Nancy는 화면이 깨진 전화기를 주웠다.
- ⑤ Dylan은 내가 매우 좋아하는 작곡가의 노래를 불렸다.

09 가정법 과거는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형 …」의 형태로 쓰고,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꿀 때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꿔 쓴다.

10 선행사 the book의 소유격을 대신할 수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또는 of which를 이용해 영작할 수 있다.

- 11 ④ 가정법 과거(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형 ...)가 되도록 had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만약 그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면 나는 그곳에 갈 텐데.
 - ⑥ 선행사가 사물일 경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 또는 of which를 쓰므로 whose 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나는 가격이 매우 높은 티셔츠는 사고 싶지 않다.

12 선행사 The company 뒤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오도록 배열한다.

13 주어진 문장은 '그리고 그들이 읽거나 쓸 수 없었다면 그것은 훨씬 더 힘들었다.'라는 의미이므로, 전화와 인터넷의 시대 이전에 사람들은 단지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몇 주 동안 기다렸다는 내용 뒤에 오도록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4 ④ letter는 '편지'라는 의미로 쓰였다.

15 주어 It은 쓰인 대상이므로 첫 번째, 두 번째 빈칸에는 수동태(be동사 + 과거분사)를 쓰고, 나머지 빈칸에는 선행사 a woman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을 이끄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와 husband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6 ④ 글쓴이가 병원에 어떤 음식을 가져갈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 ① three
- ② the little one
- ③ the husband's mother
- ⑤ with the middle son

17 prepare와 plant가 had의 목적격 보어이므로 동사원형으로 쓴다.

사역동사(have) + 목적어 + 목적격 보어(동사원형): ~이 …하게 하다

18 ② 이쪽이 이기든지 저쪽이 이기든지 상황은 똑같고 어제도 일했고 내일도 다시 일할 거라고 했으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도록 Everything을 Nothing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9 ⑥와 ②의 밑줄 친 whether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였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절에 해당하는 간접의문문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였다.

① 나는 그녀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것이다.

② 우리는 네가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그곳에 갈 것이다.

③ Jason은 동의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④ 그들은 내게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지 물었다.

⑤ 너는 박물관이 열려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0 가정법 과거(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형 ...)가 되도록 will을 would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최종점검 모의고사

Lesson 06

pp.88~91

- 01 ③ 02 of 03 ④ 04 ②
- 05 Let me draw a lovely cat 06 ⑤ 07 ④
- 08 The more famous, the more people 09 ③ 10 ④

- 11 It is my teacher that is wearing sunglasses. 12 ①
 13 ② 14 ④ 15 you can check where your book is
 16 ④ 17 It is this filtered water that you can drink.
 18 ① 19 ③ 20 ⑤

- 01 ③ '어떤 것을 만들거나 기르다'는 produce(생산하다)의 영영풀이이다.
 02 • be made of ~: ~(으)로 만들어지다
 그 바구니는 밀짚으로 만들어졌다.
 • think of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여기다]
 나는 그녀를 내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한다.
 03 ④ Which do you prefer, A or B?(너는 A와 B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니?)는 상대방에게 두 가지 중 선호하는 것을 묻는 표현이다.
 ⑤ I hate ~.(나는 ~을 싫어해.)는 상대방에게 싫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04 상대방에게 두 가지 중 선호하는 것을 묻는 표현인 Which do you prefer, A or B?(너는 A와 B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니?)가 되도록 ④와 ⑤에는 각각 Which와 or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5 Let me + 동사원형 ~.: 내가 ~하게 해 줘.
 06 소녀가 주머니를 불인 판과 휴대전화 주머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문자 소년이 휴대전화 주머니가 더 좋다고 대답했고 소녀가 알겠다고 했으므로 함께 귀여운 휴대전화 주머니를 만들자는 내용이 되도록 ⑥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7 It is[was] ~ that ...은 '...한 것은 (바로) ~이다[이었다]'라는 의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It is[was]와 that 사이에 넣어 강조할 수 있다.
 08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할수록 더 ...한[하게]) 구문에서 비교급이 명사를 수식할 경우, 수식 받는 명사는 비교급 뒤에 쓴다.
 09 ③ → that
 It ~ that ... 강조구문이 되도록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0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할수록 더 ...한[하게]) 구문은 접속사 as(~할수록)를 이용하여 바꿔 쓸 수 있다. 또한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 구문에서 비교급이 명사를 수식할 경우, 수식 받는 명사는 비교급 뒤에 쓴다.
 11 It is[was] ~ that ...: ...한 것은 (바로) ~이다[이었다]
 12 ④ It ~ that ... 강조구문에서 강조되는 대상이 사람이면서 주어일 때 that 대신 who를 쓸 수 있으므로 that 또는 who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⑤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할수록 더 ...한[하게]) 구문이 되도록 비교급인 better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3 주위에 많은 독특한 책들이 있고 이런 책들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고 했으므로 독특한 책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4 ④ 여러 사람과 책을 공유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므로 다음 독자가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놓아두라는 내용이 되도록 private(사적인)을 public(공공의)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5 check의 목적어로 간접의문문(의문사 + 주어 + 동사)이 오도록 배열한다.
 16 ④ both A and B: A와 B 둘 다
 ⑤ call A B(A를 B라고 부르다)가 A is[are] called B(A는 B라고 불리다)의 수동태로 바뀐 형태이므로 called가 적절하다.
 17 It is[was] ~ that ...: ...한 것은 (바로) ~이다[이었다]
 18 물을 걸러 마실 수 있는 책에 대한 설명이므로, 더러운 물에서 생기는 질병으로부터 많은 어린이의 생명을 구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
 19 ③ → think
 사역동사(make) + 목적어 + 목적격 보어(동사원형): ~이 ...하게 하다
 20 그 회사는 그 책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⑥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01 ② 02 passed away 03 ④ 04 ④
 05 ⑤ 06 ⑤ 07 ③ 08 ④ 09 ①
 10 previous → next[following]
 11 I want to know if Mia can go to the concert.
 12 said that he had been 13 ④ scared ⑤ to be 14 ③
 15 ⑤ 16 to pay 17 said she was teaching
 18 Is there any evidence that supports what the writer says?
 19 ② 20 ③

- 01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알려지거나 사용되다'는 spread(퍼지다)의 영영풀이이다.
 02 pass away: 사망하다, 돌아가시다
 03 ④는 '나는 전적으로 동의해.'라는 의미의 동의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의를 제기하는 표현이다.
 04 주어진 문장은 '그리고 여기 이 아이는 여자아이가 아니야.'라는 의미이므로, 그 아이가 사실은 남자아이라고 밝히는 문장 앞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5 ④ by the way: 그런데
 ⑤ in fact: 사실은
 06 ④ A: 나는 고양이는 개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해.
 B: 네 말이 맞아. 이 둘은 좋은 친구야.
 ① A: 그것은 올해 최고의 드라마야.
 B: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것은 좋은 드라마가 아니야.
 ② A: 그 쪽에 대한 네 의견은 뭐니?
 B: 글쎄, 나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③ A: 너는 저 신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B: 나는 그것들이 가볍고 편해 보인다고 생각해.
 ④ A: 너는 곰 인형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B: 그것들은 귀여워.
 07 ④ ⑤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가 적절하다.
 ⑥ 간접화법 문장으로, that절의 동사는 주절의 시제에 맞게 써야 하므로 were가 적절하다.
 08 평서문의 직접화법을 간접화법 전환할 때, 전달동사가 said to이면 told로 바꾸고, that절의 인칭대명사를 전달자의 입장에 맞게 바꾸고, that절의 동사와 지시대명사, 시간·장소의 부사(구)를 주절의 시제에 맞게 바꿔야 한다.
 09 ①은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이끄는 명사절이고, 나머지는 모두 '만약 ~라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다.
 ① 나는 그것을 살지 결정할 수 없다.
 ② 너는 서두르면 늦지 않을 것이다.
 ③ 너는 원한다면 이제 떠나도 된다.
 ④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내게 전화해.
 ⑤ 그는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10 직접화법의 tomorrow는 간접화법에서 the next[following] day로 바꿔야 한다.
 11 know의 목적어로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접속사 if가 이끄는 명사절이 오도록 배열한다.
 12 평서문의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전환할 때, 전달동사가 say[said]이면 그대로 두고, that절의 인칭대명사를 전달자의 입장에 맞게 바꾸고, that절의 동사와 지시대명사, 시간·장소의 부사(구)를 주절의 시제에 맞게 바꿔야 한다.
 13 ④ 어떤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있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내용이 되도록 scared(무서워하는, 겁먹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turn out to be ~: ~인 것으로 드러나다

- 14** • Danina Garcia-Fuller의 학생들은 무서운 광대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다. → T
 • Patricia Visoso는 누가 무서운 광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F
 • TV 방송국들은 광대들이 학생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공했다. → F
- 15** ⑤ 문맥상 이야기들은 매우 빨리 퍼질 수 있고 누구나 틀린 정보로 가득 찬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되도록 true(진짜의)를 false(가짜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16** 앞의 to look at the right sources와 별별 관계인 진주어가 되도록 to부정사로 고쳐야 한다.
- 17** 평서문의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전환할 때, 전달동사가 say[said]이면 그대로 두고, that절의 인칭대명사를 전달자의 입장에 맞게 바꾸고, that절의 동사와 지시대명사, 시간·장소의 부사(구)를 주절의 시제에 맞게 바꿔야 한다.
- 18** evidence(증거)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오고, 관계대명사절의 동사 supports의 목적어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오도록 배열한다.
- 19** ② → that[which]
 사물 선행사 a websit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을 이끌도록 that 또는 which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20** ③ 앞에서 정보를 한 번 더 신중하게 확인해 보라고 했으므로,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이 말하는 것들도 의심하라는 내용이 되도록 ‘어떤 것에 의심을 가지거나 표현하다’라는 영어풀이의 question(의심하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최종점검 모의고사

Lesson 08

pp.96~99

- | | | |
|------------------------------------|------------------------|--------------------------|
| 01 ③ | 02 passed by | 03 ④ |
| 04 there's no cup I can use | 05 ⑤ | 06 ③ |
| 07 ⑤ | 08 ② | 09 some → another |
| 10 giving → to give | 11 Some, others | 12 ② |
| 13 ④ | 14 ⑤ | 15 ④ |
| 18 ① | 19 ② | 20 ⑤ |

- 01** • 너는 그가 시험에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니? (pass: ⑥ 합격[통과]하다)
 •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approach: ⑦ 접근법)
 • 그녀는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realize: ⑧ 깨닫다, 알아차리다)
 • 그곳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의 산업을 이끄는 강력한 나라이다. (powerful: ⑨ 강력한)
- 02** pass by: 지나가다
- 03** ④ 난방기를 고치는 소리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 화가 난 소년을 소녀가 진정시키는 흐름이 되도록 can을 can't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I can't stand ~.(나는 ~을 참을 수 없어.)는 화가 났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04** there's no cup 뒤에 cup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I can use가 오도록 배열한다.
 there is[are] no ~: ~(들)이 없다
- 05** 주어진 문장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는 의미이므로 고맙다는 민수의 말인 ⑥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6** ④ forget + to부정사: ~할 것을 잊다 (cf. forget + 동명사: ~한 것을 잊다)
 ⑥ forge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⑦ be busy + 동사원형-ing: ~하느라 바쁘다
- 07** some ~, the others ...: (여럿 중) 몇몇은 ~, 나머지 모두는 ...
- 08** tell, ask, order, allow는 모두 「동사 + 목적어 +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쓴다. make는 사역동사이므로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 09** one ~, another ..., the other ~: (셋 중) 하나는 ~, 또 다른 하나는 ..., 나머지 하나는 ~
- 10** expects는 「동사 + 목적어 +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쓴다.
- 11** some ~, others ...: (여럿 중) 몇몇은 ~, 다른 몇몇은 ...
- 12** ② taking → to take
 advise는 「동사 + 목적어 +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쓴다.
 ① 나의 부모님은 내가 정직하기를 원하신다.
 ③ 우리는 그에게 도시를 떠나지 말라고 설득했다.
 ④ 나는 두 가지 음료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탄산음료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유이다.
 ⑤ 어떤 회원들은 그녀의 생각을 지지하지만 나머지 모두는 그리지 않는다.
- 13** ④ 100일 후에 훈련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101일째 날에 문이 열렸다는 내용이 되도록 closed를 opened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14** order는 「동사 + 목적어 +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쓴다.
- 15** ④ → saying
 keep + 동명사: 계속 ~하다
- 16**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 17** 밀줄 친 ⑧와 ⑨는 ‘합격[통과]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나머지는 모두 ‘지나가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① 나는 그 가게를 매일 지나간다.
 ② Jane은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다.
 ③ 열차는 터널을 통과했다.
 ④ 남자가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채지 못했다.
 ⑤ 너는 배가 다리 밑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봤니?
- 18** 주어진 문장은 “의자에 가장 먼저 앉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다.”라고 스승이 말했다.’라는 의미이므로, 싸움이 시작됐다는 내용 앞인 ①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9** ④ to sit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⑥ sooner or later: 조만간, 곧
 ⑧ General은 ‘장군’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 20** Then, he saw Corky standing with his 18 followers. Thunder realized he was all alone.에서 알 수 있다.